

제 10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5.26)

일본과 한반도

미즈코시히데아키
주한일본대사공사

한국에서 지내면서, 역시 지난 10 년 동안의 큰 변화 중 하나는 IT 의 영향이다. 지난 10 년 IT 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경우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촛불집회에 모이거나 인터넷 상의 일부 악플로 인해 여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한 것 등을 보면 인터넷이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보다도 큰 듯 싶다.

그리고 청계천 복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의 고양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전통적 남성중심사회로부터의 변화 등도 새로운 것이다. 한편 10 년 전의 재현처럼 보이는 것으로는 경제와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7 년의 IMF 위기가 떠오른다. 또한 남북관계는 황장엽 망명사건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긴장되었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양대통령 시대에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한국국민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 10 년 전 근무할 때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근무 기간 중에 한국에 놀러 온 친구도 별로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류 붐의 영향으로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근무를 부러워했고 이렇게 10 년 동안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역시 한일의 유대가 두터워졌다는 사실이야말로 10 년 만에 한국에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다.

<Q&A>

Q.식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한일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가.

A. 한일관계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넘을수 없는 벽 같은 것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양국에 대한 각국의 스테레오타입을 없애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편견을 차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미래는 조금 더 가깝고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